

경제 위축 속 '돈벌기' 책 인기

명예퇴직 바람 타고 틈새 공략 ... 다양한 종류의 실질정보 보완해야

얼마 전까지 리엔지니어링 등 경영혁신서나 직장인의 처세서가 주류를 이뤘던 경제·경영서 코너에 돈 버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 봇물이다. 비슷한 종류의 책이 없지 않았지만 과거의 책들은 창업, 소규모 사업 안내 등의 제목으로 고상함을 유지한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목에까지 노골적으로 '돈'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감원, 명예퇴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혁신서는 공염불이고 처세서 읽고 회사에 적응을 잘 하느니 한시라도 빨리 제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개별 경험담 모은 '하우 투' 도서들

'돈벌기' 책의 특징은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의 경험담을 모은 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8년 동안 8개 업종, 16개 점포를 운영해 초기 자본 7백만원에서 자산 10억원을 모은 저자의 경험을 담은 《돈 버는 데는 장사가 최고다》(김찬경, 현대미디어), 9년 동안 부동산·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18억 원을 벌어들인 공인회계사 김희상씨의 《돈 좀 벌어봅시다》(길벗)가 대표적이다.

원론 성격이 강했던 창업 관련 매뉴얼이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프랜차이즈 안내가 대부분이었던 이전 책에 비해 이 책들은 곧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특히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독자에게 컨설턴트 역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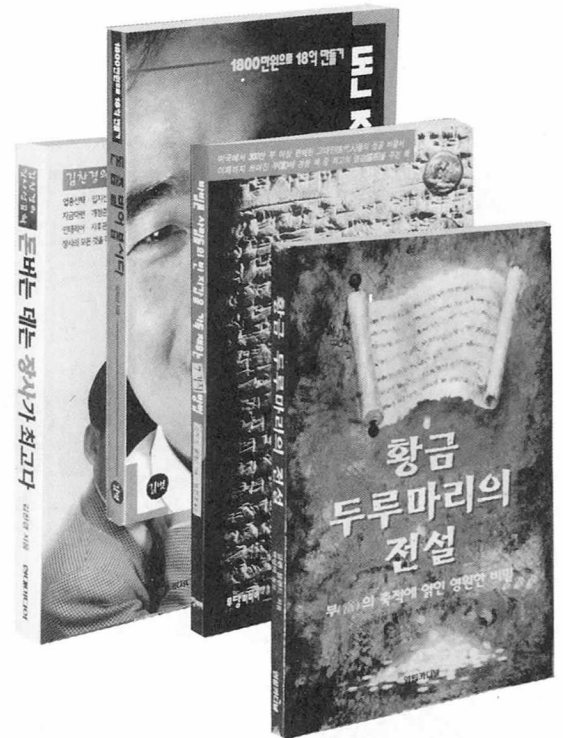
자처해 책임감이 돋보인다.

경험담은 아니지만 사회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돈벌이 방법을 제안하는 책도 한 흐름을 이룬다. 《P사업 안내》(하세용 지음, 키출판사)나 《컴퓨터 한대로 돈을 벌자》(안프로덕트 지음, 동이)의 경우는 첨단기기인 컴퓨터를 이용한 유망사업을 소개했다. 이규형의 《일본을 알면 돈이 보인다》(가서원) 역시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중화되지 않은 일본의 소규모 사업을 신사업 아이템으로 제시한다.

실용성 면에서는 위의 책들에 미칠 바 못되지만 경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응용서도 선보였다. 《경제기사는 돈이다》(강형문·송양민 지음, 거름) 《신고산의 뒤집어 보는 경제》(?) 《주인없는 돈》(황인태 지음, 청년사)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일간지 경제부 기자이거나 어느 정도 경제학 지식을 갖춘 이 책의 저자들은 경제지표나 기사 등을 분석하면 돈과 자본의 흐름을 알게 되어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불황이 돈벌이 책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저변에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돈철학을 다룬 《바빌론 사람들의 빈 지갑을 가득 채우는 7가지 방법》(조지 S. 클래슨 지음, 무당미디어) 《황금 두루마리의 전설》(글렌 블랜드 지음, 영림카디널)이 이를 대변해 준다. 영림카디널의 최광용 편집장은 "돈을 버는 것과 아울러 어

돈 버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 봇물이다. 명예퇴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혁신서나 처세서보다는 노골적으로 '돈'을 내세워 제 살길 찾게 하는 책이 더 현실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떻게 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책 출간의 배경을 밝힌다.

책임 있는 출판 요구

책 한권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지만 이같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는 절박한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더욱 책임있는 출판이 요구되는데, 경험부족 탓인지 아직까지 장사와 부동산 투자에 한정되어 있다는게 출판 관계자들의 중론. 현대미디어의 박서현 차장은 "상가분양 활용법이나 금융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실질정보를 담은 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최근의 돈벌기 책의 출간과 그 책의 리뷰를 통해 실용서가 제모양을 갖추게 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다.

반면 책을 고르는 독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도록 권고한다. 저자들 역시 책의 내용이 개별 경험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현실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귀뜸이다. 책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실제로 투자계획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심있는 분야의 컨설턴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것도 책을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고르고 판단하는 식견이 필요하다. 최소한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 이미 시의를 놓친 낡은 아이템은 아닌지 살피는 것이 실패를 최소화하는 자료선별 기준이다.

— 이현주 기자

(철학동화)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3 비닐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트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과학 동화]
E. 산단케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윤 옮김/3,000원
-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M. 리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 11 물방울의 추억[과학 동화]
E. 드랄라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트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3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R.M. 톨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4 뇌 속으로의 여행[과학 동화]
F.B. 니카쎄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쎄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6 가난뱅이 조니와 아르니카
E. 라자르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18 아프리카 동화
아저리안, 케닝햄 엮음/노재윤 옮김/3,000원
- 19 두 임금님
F.B. 니카쎄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20 늙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1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이윤희 지음/4,000원
- 22 사각형의 세계[수학 동화]
F.B. 니카쎄오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3 흑인 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4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트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5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M. 보띠리에리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 26 우물 속의 보물
L. 코몰리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27 환상의 나라에서
E. 올리베로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 28 자유를 사랑한 아기곰, 벨리[환경 동화]
M. 스트리안네제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29 무지개 흑성
P. 아클레르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 30 선생님이 들려 주신 이야기
M. 보띠리에리 지음/김홍래 옮김/5,000원
- 31 착한 마녀 야마굴
M. 제니시오 지음/김홍래 옮김/5,000원
- 우체부 아저씨
G. 마르티니코 지음/채윤경 옮김/* 구간 예정